

V. 尖端 産業 動向

16메가 DRAM 가격 急落

반도체 메모리의 주요 부품인 16메가 DRAM 가격이 일본 국내외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등 해외 메이커들의 대규모 재고 처분에 기인함

-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
 - 16메가 DRAM은 현재 홍콩, 미국 등의 해외시장에서 1개당 6.2~6.3 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작년말부터의 하락율은 10% 이상 되고 있음
 - 이는 한국 등의 海外 業體가 12월 결산에 맞춰 대규모 재고를 처분했기 때문임
 - 해외 가격 하락과 함께 일본 국내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특히 16메가 DRAM의 고급형 가격은 작년 중반이후 일반형보다 20%정도 높았으나, 최근에는 일반형의 가격 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음
 - 해외 시장 가격의 하락에 따라 컴퓨터 메이커 등 국내의 대형 수요자들로부터의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
(「日本經濟新聞」, 97. 1. 14)

세계 반도체 매출 11년만에 하락

96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 부문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 메이커의 苦戰이 두드러짐

- 前年 對比 7% 감소
 - 미국 하이테크 調査會社의 보고에 의하면, 96년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 감소한 1,4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메모리 분야의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함
 - 기업별로는 미국의 인텔社가 29% 증가한 169억 달러를 기록,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2위는 NEC(전년비 6% 減), 4위는 히다치제작소(同 12% 減), 삼성전자(同 26% 減)는 6위에서 7위로 轉落
 - 지역별 시장 점유율은 美洲 44.3%, 日本 36.7%, 아시아 9.4%임
(「日本經濟新聞」, 97. 1. 7)

미국의 1997년도 컴퓨터·반도체 산업 이슈

컴퓨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질 것이며, 노트북과 서버용 PC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임

- 1997년도 미국 컴퓨터 시장
 - PC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질 전망
 - 97년도 미국의 PC 시장은 13% 성장에 그치는 데 반해, 중남미는 22%, 아시아는 25%의 높은 성장이 기대됨
 - 따라서 더 많은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명암이 엇갈리는 분야별 전망
 - 노트북 매출은 20% 성장하고, PC 서버는 인터넷 웹페이지 개설 붐으로 30% 가량 성장할 것이 기대됨
 - 미니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매출은 6.3%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메인 프레임은 판매 대수는 증가할 것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은 9.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DRAM 이외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며, 장기적인 반도체 시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전망됨

- 1997년도 미국 반도체 시장
 - 공급과잉은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PC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을 흡수해내는 데에는 수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임
 - 더구나 정부의 투자 지원을 받는 싱가포르 및 南아시아 국가들의 반도체 투자가 지속될 전망임
 - 개별 칩당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bit" 단위의 공급 과잉은 수요의 35%에 달해 가격을 압박할 전망임
 - 반도체 수요 회복,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전망
 - 새로운 DRAM 수요처로 기대됐던 첨단 기기들(DVD,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1997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듯함
 - DRAM 이외의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회복될 전망
 -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텔을 비롯한 업체들의 고기능 제품 출시로 15-25%의 매출 성장이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PC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PC당 메모리도 많아지며, 각종 첨단 기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는 호전될 전망임
(Business Week, 1997. 1.13)